

한국어 억양구의 경계톤*

The Boundary Tones in Korean Intonational Phrases

한선희** · 오미라***

(Sun-Hee Han · Mira Oh)

ABSTRACT

A study of boundary tones, which are realized at the final syllable of an Intonational Phrase, is important in that sentential meaning is often differentiated solely by the use of different boundary tones in Korean.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hree-fold: Firstly, it aims at finding ou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boundary tones between designed corpus and natural speech. Secondly, it is to show that gender and dialectal differences are crucial factors in determining different realizations of boundary tones. Finally,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better speech synthesis and speech recogn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rphemes where boundary tones are realized. This study has shown that nine different kinds of boundary tones are realized based on the contextual, gender and dialectal differences. In addition to the boundary tones suggested in Jun (1993), three more boundary tones are introduced: L-%, H-%, LHLH%.

Keywords: boundary, tone, intonation

1. 머리말

한국어의 억양 구조는 악센트구와 억양구로 되어있고 악센트구는 LHLH패턴을 갖으며,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악센트구와 경계톤으로 되어 있다(Jun 1993). 경계톤은 발화를 억양구로 분리하는 데 큰 몫을 하며, 한국어에는 형태론적으로는 같은 모양이나 경계톤에 의해서만 의미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계톤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분석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오미라, 이해영 1994).

Jun(1993)은 한국어 억양구말 경계톤의 유형을 대략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분류하였다.

* 본 논문은 1998년도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 정보통신기초 연구사업(과제번호:98-12)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일부임(과제 책임자: 정국)

** 대림대학 실무영어과

*** 여주대학 실무영어과

(1) Types of Intonational Phrase Boundary Tones (Jun 1993)

L%, H%, LH%, HL%, LHL%, HLH%

여기서 %는 경계톤을 표시하며 경계톤은 억양구 마지막 음절의 Fo로 결정된다(Jun 1993). 이제까지의 경계톤 연구는 주로 음성실험실에서 화자가 읽은 낭독체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음성인식과 자연스런 음성합성을 위해서는 자연발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성분석을 통해 낭독체와 자연발화의 경계톤 특성을 각각 살펴보고 나아가 자연발화에서 나타난 방언과 남녀간에 나타나는 경계톤의 차이도 아울러 살핀다. 끝으로 한국어에 나타나는 경계톤의 유형과 형태소와의 관계성을 밝힌다.

2. 낭독체의 억양구 경계톤

2.1 분석자료

낭독체의 경계톤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나도향의 “그믐달”(2)을 남자 2명이 보통속도로 읽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 그믐달 (나도향)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믐달은 너무 요염하여 감히 누가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감쪽하여 어여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 버리는 초승달은 세상을 후려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이 비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승배를 받는 여왕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 한 등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하는 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상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승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쇠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을 쳐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 그믐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오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졸누러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적놈도 보는 것이다. 어쨌든 그믐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 글은 서술체 형식으로 되어있고 모두 11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억양구말 경계톤 연구는 주로 문장말 억양과 동일시되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말에 나타나는 경계톤의 유형뿐만 아니라 문장 중간의 억양구말에 나타나는 경계톤까지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2)의 자료는 만연체 문장이어서 발화 중간의 억양구말 경계톤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2.2 분석방법

청각적 인식과 Multi-Speech로 분석한 피치의 곡선을 보며 억양구를 결정했다. 각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난 피치의 곡선 변화로 경계톤을 결정한 후 마지막 톤의 피치의 값을 재었다. 또한 억양구의 큰 특징은 휴지(pause)이므로 휴지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억양구말부터 다음 억양구초까지의 길이를 측정했다.¹⁾

2.3 분석결과

2.3.1 경계톤의 종류 및 분포

화자별로 억양구 구성을 살펴보면 두 화자 모두 11개 문장을 50개의 억양구로 읽었으나 억양구의 위치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서술체여서 의문문에서처럼 문미에서 다양한 경계톤을 보이지는 않고 두 화자 모두 L%의 경계톤을 갖는다. 즉, 종결어미 /다/는 모두 L%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문장의 중간에 나타나는 억양구는 다양한 경계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은 경계톤의 종류와 분포 비율을 보여준다.

(3) 경계톤의 종류 및 분포

L%	63 %
HL%	22 %
LH%	9 %
LHL%	3 %
H%	3 %

2.3.2 경계톤의 피치

경계톤의 마지막 피치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문장말에서는 L%만이 나타나므로 나머지 유형의 경계음조는 모두 문장내에서만 나타난다. (4)는 피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4) 경계톤말 피치의 평균값 (Hz)

	문장내	문장말
L%	92.44	87.84
HL%	90.12	n.a.
LH%	99.01	n.a.
LHL%	101.34	n.a.
H%	98.40	n.a.

피치값의 측정결과 문장말의 피치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L%의 유형을 갖는

1) 억양구말은 유성음으로 끝나나 억양구초는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파열음의 폐쇄기간까지의 길이를 재었다.

경우에도 문장말의 경계톤의 피치가 문장내의 경계톤보다 더 낮다.

2.3.3 억양구말의 휴지 길이

발화 마지막의 휴지를 제외한 나머지 휴지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5)와 같다.

(5) 억양구말 휴지의 평균길이 (ms)

	문장내	문장말
L%	445.97	658.10
HL%	497.31	n.a.
LH%	349.99	n.a.
LHL%	514.29	n.a.
H%	711.33	n.a.

측정 결과 경계음조가 H%인 경우를 제외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의 휴지가 문장내 휴지에 비해 일반적으로 길다.

2.4. 낭독체의 경계톤 연구 결과

서술문으로 된 낭독체의 억양구말에 나타나는 경계톤의 유형을 문장말과 문장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문장말에서는 L%만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문장내에서는 좀더 다양한 경계톤이 나타나, Jun (1993)에서 제시된 HLH%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서술문으로 구성된 낭독체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듯 싶다. 또한 피치의 경우에도 문장말의 피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지의 경우에도 경계음조가 H%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말의 휴지가 가장 길다.

3. 자연발화에서의 억양구 경계톤

본 장에서는 자연 발화 자료에서 억양구말의 대표적인 음성 특징인 경계톤을 집중적으로 밝힌다. 낭독체나 실험실의 제한된 음성자료가 아닌 의문문 및 서술문이 골고루 섞인 대화체의 자연발화 자료여서 꾸밈없는 돌발적인 어투나 중간에 간섭을 당하는 대화 등이 빈번하여 앞 장에서 살펴본 낭독체에서의 운율 연구와 다른 결과가 예측된다. 여기서 밝혀지는 운율정보는 자연발화 음성자료의 표기를 용이하게 해주고 자연발화 음성자료의 인식단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라디오 교통방송의 “밤과 음악사이”의 부부 상담 부분이다. 이것은 방송 내용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전화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다음의 Case 1과 Case 2이다. 그 각각의 발화자 정보와 억양구로 구분된 전체 자료는 (6-7)과 같다.

(6) 발화자 정보 및 내용

Case 1 (교통방송 “밤과 음악 사이” 1996년 8월 29일 저녁 10시)

발화자: A: 아나운서 사회자
 B: 상담원(남, 경상도 화자)
 C: 상담자(남, 표준어 화자)

내용: 부부상담(부인이 가출이 잦고, 주벽이 심함)

Case 2 (교통방송 : “밤과 음악 사이” 1996년 8월 29일 저녁 10시 15분)

발화자: A: 아나운서 사회자,
 B: 상담원(남, 경상도 화자),
 C: 상담자(여, 표준어 화자)

내용: 남편이 직장을 갖지 않고 무위도식하려고 함. 의처증도 심함.

(7) 억양구로 분리된 전체 분석자료

부록 1에 나타난 Case 1과 Case 2의 자료는 피치 변화와 휴지를 근거로 운율적 구분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 편의상 억양구 경계는 “#”로 표시하였다.

3.2 분석방법

먼저 청각적으로 구분화된 음성자료를 피치패턴을 중심으로 재구분하면서 억양구말 경계 성조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성조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과 바로 앞 음절의 Fo를 함께 측정하였고 경계톤이 실현되는 음절의 길이도 함께 측정하였다. 음성자료를 CSL로 디지털화하였으며 피치와 길이는 Multi-Speech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 자연발화의 경계톤 분석결과

3.3.1 경계톤의 분포 및 비교 (남녀 및 표준어화자와 방언화자 비교)

억양구말 경계톤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 보고 나아가서 성별, 방언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억양구말 경계톤을 나타내는 위치별로 문장말과 문장 중간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이것은 경계톤이 없이는 억양구말의 형태소들이 문장말과 문장 중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어를 구사하는 남자(Case 1의 상담자 C)와 역시 표준어화자인 여자(Case 2의 상담자 C)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본다.

3.3.1.1 남성화자(Case 1의 상담자 C)와 여성화자(Case 2의 상담자 C)의 비교

가. 문장말

문장말에서 남성화자와 여성화자는(둘다 표준어화자) 그림 1과 같이 경계톤의 유형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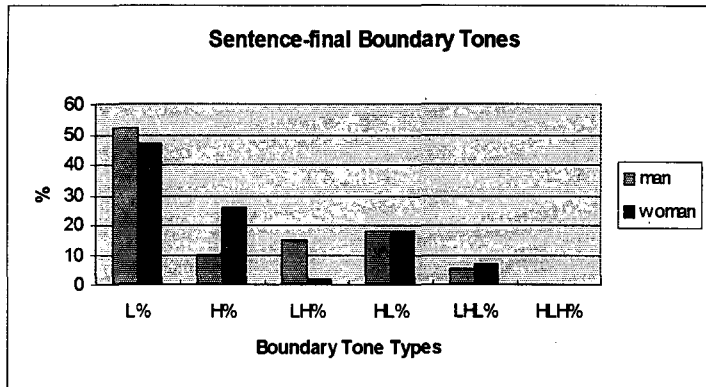


그림 1. 문장말 경계톤의 남녀별 유형 분포

문장말 위치는 단순한 서술문일 경우에는 대체로 L%으로 실현되며, 대답을 요하는 의문문이나 서술문일지라도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H%로 실현된다. 문장말 어절의 어미는 대체로 '네' 나 '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을 자세히 보면, 문장말 위치에서 남녀 모두 L%형이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는 HL%형, LH%형이 많으며, 여자는 H%형, HL%형이 많다. 남녀가 특히 구별되는 것은 문장말에서 남자는 L% 다음으로는 LH%를 H%보다 더 많이 쓰는데 반해 여자는 LH%보다는 H%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장말에서 남자는 바로 고성조로 올리기도 하는 굴곡있게 저성조에서 고성조로 올라가는 형태를 더 많이 취하며, 여자는 LH%보다는 H%, 즉 바로 고성조로 올리는 형태를 더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사실상 HL%형과 LHL%형은 남녀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며, HLHF%형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나. 문장 중간

동일한 화자들이 문장내부에서 보인 억양구말 경계톤의 유형의 사례수와 빈도는 그림 2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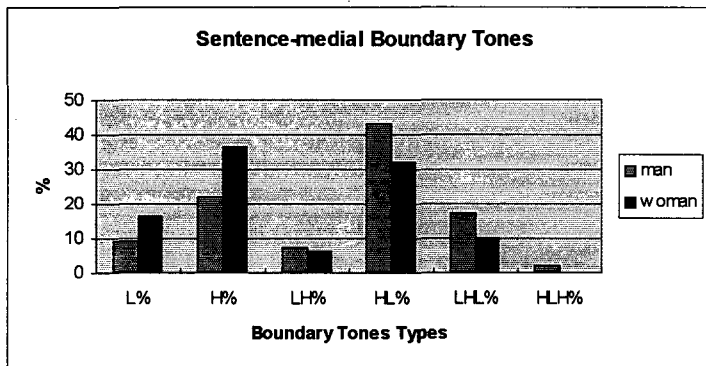


그림 2. 문장중간 경계톤의 남녀별 유형 분포

그림 2를 보면 남자의 경우, HL%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H%형인데, 이 두 유형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여자는 H%형이 가장 많고 HL%형이 그 다음이며 이 두 유형이 전체의 67%를 차지하여 남자의 경우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문장 중간에서는 문장말에서와는 달리 L%형 보다는 H%형과 HL%이 보다 많이 나타난다. 또 남녀 모두에서 LHL%이 그 다음 순서이며, LH%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많이 나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문장 중간에서 경계톤이 실리는 곳의 어미는 대체로 연결형 어미인 '고,' '도,' '서,' 등과 주격 조사인 '이,' '가' 등이며, '어,' '그,' '자,' '한,' '또,' '근데,' '인제' 등의 간투사도 상당수 차지한다. 형태소와 관련한 논의는 3.3.5.절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이로써 문장말과 문장 중간에서 실현되는 경계톤 유형의 빈도가 남녀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문장말에서는 남녀 모두 L%이 가장 많으나 문장 중간에서는 여자의 경우 H%이 남자의 경우는 HL%이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 문장말과 문장 중간의 종합

다음으로는 문장말과 문장 중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계톤들을 종합하여 보았다. 그림 3이 그 결과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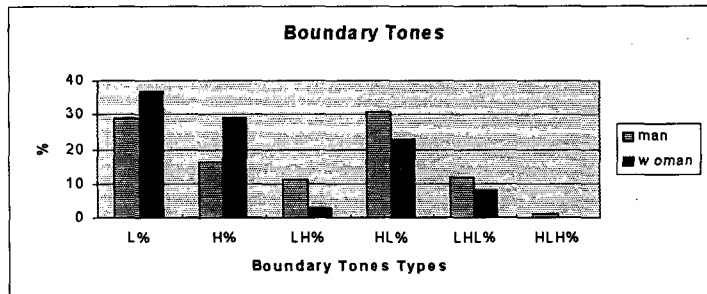


그림 3. 억양구 경계톤의 남녀별 유형 종합

이것을 보면, 문장의 모든 위치에서의 경계톤은 남자의 경우에는 HL%, L%, H%, LHL%, LH%, HLH%의 순서로 빈도가 높으며, 여자의 경우는 L% H% HL% LHL% LH% HLH%의 순서로 빈도가 높다.

지금껏 밝힌 세 사례에서의 경계톤 유형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여성 화자의 경우 H-%와 L-%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경계톤유형	L-%		H-%	
	문장내	문장말	문장내	문장말
빈도 (%)	3	5	16	0
사례수	1	3	5	0

여기서 H-%와 L-%은 각각 H톤과 L톤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이들을 각각 H%와 L%로 넣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3.3.4 절에서는 이들의 피치값을 제시한다.

(8) 경계톤의 위치별 빈도 비교(남녀별)

문장말: 남자: L% > HL% > LH% > H% > LHL% > HLH%

여자: L% > H% > HL% > LHL% > LH% > HLH%

문장중간: 남자: HL% > H% > LHL% > L% > LH% > HLH%

여자: H% > HL% > L% > LHL% > LH% > HLH%

종합: 남자: HL% > L% > H% > LHL% > LH% > HLH%

여자: L% > H% > HL% > LHL% > LH% > HLH%

여기서 우리는 앞 낭독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HLH%가 자연발화체에서는 나타나 되 그 빈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1.2 표준어 남성화자(Case 1의 상담자 C)와 경상도 방언 남성화자(Case 2의 상담원 B)의 비교

이 절에서는 Case 1에 등장하는 상담자인 표준어 화자와 Case 2에 등장하는 상담원인 경상도 방언 화자의 경계톤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준어 화자에 관해서는 앞 절에서 남녀 별 비교에서 나온 통계 그대로이고, 이것을 경상도 화자의 것과 비교한다. 비교의 순서는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말과 문장중간 및 전체 종합의 순서대로 전개한다. 각각의 위치에서의 분석 결과를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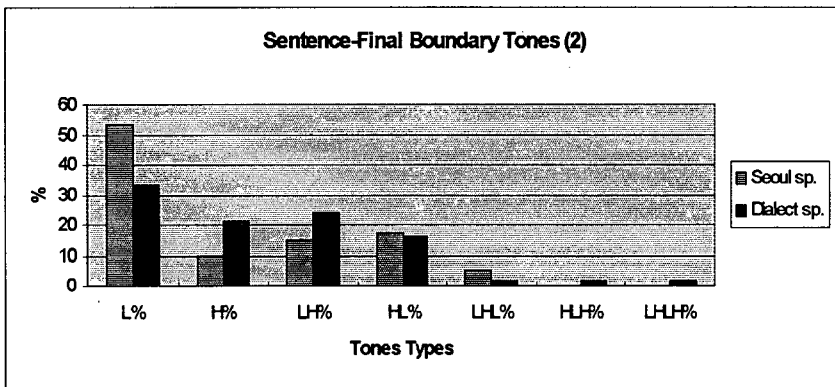


그림 4. 문장말 억양구 경계성조의 방언화자별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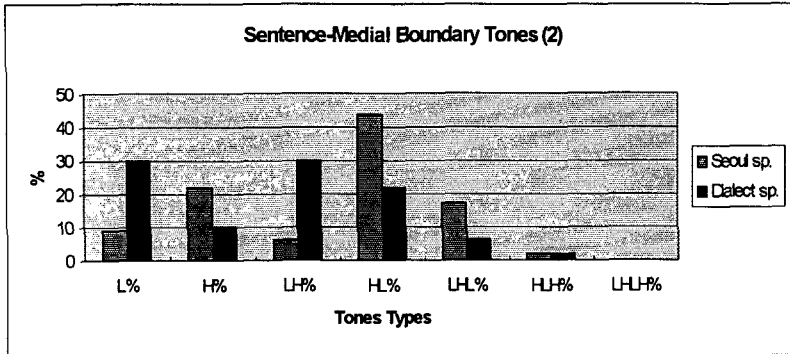


그림 5. 문장중간 억양구 경계성조의 방언화자별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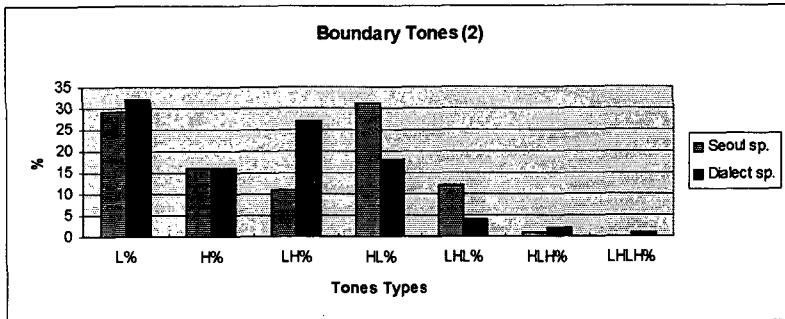


그림 6. 표준어 화자와 방언화자의 경계톤 유형 비교(종합)

위에서 보인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 표준어 화자와 방언 화자는 경계톤의 유형 분포에 있어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방언 화자의 경계 성조를 보면, 문장말에서 뿐 아니라 문장 중간에서도 L%형이 가장 많은 점이 표준어 화자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LH%형은 표준어 화자에게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였으나(여자 표준어 화자인 경우는 더욱 드물다), 방언화자의 경우에는 L%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 점이 특이하다. 특히 문장 중간 위치의 억양구말에서는 LH%형이 L%과 같은 분포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따라서 표준어 화자와 경상도 방언 화자 사이의 경계 성조 유형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LH%이 표준어 화자에 비해 경상도 화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9)는 표준어 화자와 방언 화자의 경계톤 빈도를 문장 위치별로 정리한 것이다.

(9) 경계톤의 위치별 빈도 비교(표준어 화자와 방언 화자)

문장말: 표준어 화자: L% > HL% > LH% > H% > LHL% > HLH%

방언 화자: L% > LH% > H% > HL% > LHL% = HLH% = LHLH%

문장중간: 표준어 화자: HL% > H% > LHL% > L% > LH% > HLH%

방언 화자: L% = LH% > HL% > H% > LHL% > HLH% > LHLH%

종합: 표준어화자: HL% > L% > H% > LHL% > LH% > HLH%

방언화자: L% > LH% > HL% > H% > LHL% > HLH% > LHLH%

3.3.2 억양구말 음절길이

경계톤은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나는 성조이다. 억양구는 문장중간 및 문장말에 나타나므로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 길이를 측정하여 위치에 따른 길이의 차이를 관찰한다. (10)은 Case 2에 나타난 남자 A, B와 여자 C의 문장중간 및 문장말에서의 음절 길이 비교를 보여준다.

(10) 억양구말 음절길이

성별	남자 A		남자 B		여자 C	
	문장내	문장말	문장내	문장말	문장내	문장말
평균값(ms)	322	283	402	332	335	360
사례수	10	11	50	58	31	61

위의 표를 통해 우리는 억양구말의 경우 남자와 여자간의 음절길이 차이를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두 화자 모두 문장중간의 억양구말 음절길이가 문장말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문장말의 억양구말 음절이 문장중간에서 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의 어조가 딱딱하게 들리는 것은 경계톤이 실현되는 억양구말 음절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일 수 있다.

3.3.3 경계톤의 피치값

경계톤은 억양구 마지막 음절에 나타나는 피치의 변화를 기준으로 L%, H%, LH% 등으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각 경계톤의 피치값을 Case 2의 두 표준화자의 비교를 통해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L 톤의 경우는 가장 낮은 피치값을, H 톤의 경우는 가장 높은 피치값을 측정하였다.

(11) 경계톤피치

가. 남자 A의 경계톤피치

<문장내>

경계톤유형	HL%		LH%		L%	H%	L-%
	H	L	L	H	L	H	L
평균값 (Hz)	129.6	82.8	81.2	133.3	71.1	137.3	74.07

<문장말>

경계톤유형	LH%		L%	H%	LHLH%			
	L	H	L	H	L	H	L	H
평균값 (Hz)	98.16	142.86	91.67	129.5	82.05	152.3	71.1	106.6

나. 여자 C의 경계톤 피치

<문장내>

경계톤 유형	HL%		LH%		L%	H%	L-%	H-%	LHL%		
	H	L	L	H	L	H	L	H	L	H	L
평균값 (Hz)	242.62	185.98	151.91	201.9	192.25	262.6	222.22	224.87	193.17	217.5	176

<문장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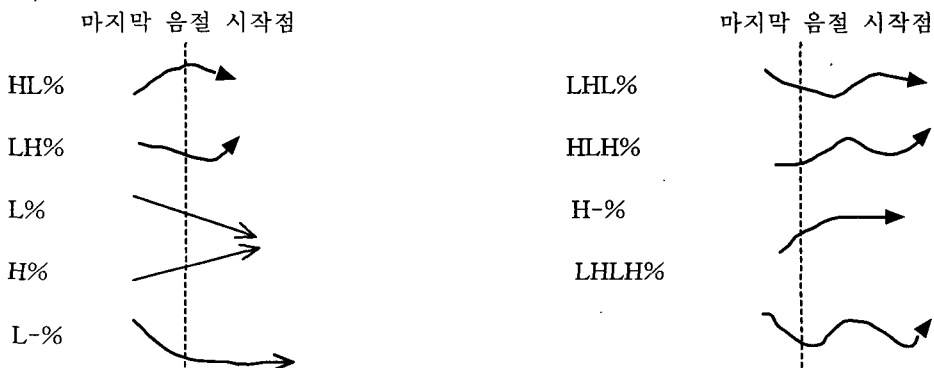
경계톤 유형	HL%		LH%		L%	H%	L-%	LHL%		
	H	L	L	H	L	H	L	L	H	L
평균값 (Hz)	210.06	156.5	179.78	181.82	157.81	296.76	164.98	158.78	181.89	156.85

(11)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자의 피치가 남자의 피치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남자의 경우 LH%가 여자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앞 절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남녀의 차이를 보이는 경계톤으로 LH%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출현 빈도의 차이 뿐만 아니라 LH%의 경우 L 톤과 H 톤의 피치값의 차이가 남녀간에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가 여자에 비해 L 톤과 H 톤의 피치값의 차이가 크다. 즉, 남자의 경우 LH%의 경계톤을 더 자주 사용하며 더 뚜렷하게 사용한다. 셋째, L%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 피치값이 문장말에서 문장중간보다 더 낮는데 비해 남자의 경우는 L 톤의 피치값이 문장말에서 문장중간보다 더 높다. 넷째, 여자의 경우는 H%를 제외하면 모든 피치값이 문장말에서 낮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모든 유형의 경계톤의 실제 피치값이 오히려 문장말에서 더 높은 피치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좀더 자연스런 음성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남녀간의 다른 경계톤의 양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3.3.4 경계톤의 대표적 유형

자연발화에서 나타난 억양구말 음절들의 F0와 길이를 측정하여 얻은 경계톤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3.5 억양구말 어절 형태소 분석

이 절에서는 전사된 음성 자료 <부록1>에서 나타나는 억양구말 어절들을 형태소별로 정리하고 사례수와 빈도(%)를 화자별로 정리한다. (13)이 억양구말 형태소의 분포를 보여 준다.

(13) 억양구말 형태소의 종류, 사례수 및 빈도

위치	표준어 남성화자 (Case 1의 상담자 C)			표준어 여성화자 (Case 2의 상담자 C)			방언 남성화자 (Case 2의 상담원B)			
	형태소	사례수	빈도(%)	형태소	사례수	빈도(%)	형태소	사례수	빈도(%)	
문장말	요?	1	2.5	요?	3	4.9	네.	24	41.4	
	요.	12	30.0	요.	31	50.8	예.	6	10.3	
	네.	3	7.5	다.	1	1.7	요?	9	15.5	
	다.	7	17.5	예.	3	4.9	요.	3	5.2	
	예.	6	15.0	네.	23	37.7	쪼?	1	1.7	
	네.	7	17.5				다.	7	12.1	
	고.	3	7.5				음.	6	10.3	
	까?	1	2.5				까?	2	3.5	
	계	40	100	계	61	100	계	58	100	
	문장중간	간투사	어-	2	18.2	어-	1	50.0	그-	6
뒤-			3	27.2	아-	1	50.0	어-	5	20.0
한-			1	9.1				아-	2	8.0
(인)제-			2	18.2				거-	1	4.0
거-			1	9.1				뒤-	2	8.0
그-			1	9.1				(인)제-	3	12.0
아-			1	9.1				마-	4	16.0
								에-	2	8.0
계			11	100	계	2	100	계	25	100
		비간투사	(지)금	1	2.8	(신랑)이	3	10.4	(아니)면	1
(을)해	1		2.8	(놀)고	10	34.6	(안하시)고	6	24.0	
(근)데	4		11.4	(그래)서	2	6.9	(우)선	1	4.0	
(저)희	1		2.8	(매췌보)자	1	3.4	(것)은	2	8.0	
(사람)이	5		14.4	(그랬더)니	1	3.4	(있)다든)지	5	20.0	
좀	1		2.8	(그)럼	1	3.4	(해야)될	1	4.0	
(부)터	1		2.8	(그러니)까	2	6.9	(결과)로	3	12.0	
(했는데)도	2		5.7	(한달)이며	1	3.4	(남편)이	1	4.0	
(제)가	3		8.7	는 한	4	13.9	(위해)서	1	4.0	
(그래)서	5	14.4	(한)다)거나	1	3.4	(하)는)데	1	4.0		
(들어오)고	5	14.4	또	2	6.9	(된)다)며)는	2	8.0		
(했)지)마)는	4	11.4	(근)데	1	3.4	(이런)것)도	1	4.0		
또	1	2.8								
(그러니)까	1	2.8								
계	35	100	계	29	100	계	25	100		

이것은 화자별로 많이 사용되는 억양구말 형태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장말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서술형 '요'의 경우 표준어 여성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며(31회, 50.8%), 표준어 남성화자가 그 다음이고(12회, 30%), 방언화자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

로(3회, 5.2%) 나타난다. 또 낭독체 자료에서 서술형 어미로 가장 일반적인 ‘다’는 표준어 남성화자와 방언화자가 각각 7회씩 사용하였으며, 이에 반해 표준어 여성화자는 1회 사용에 그친다. 문장중간의 억양구말에서 나타나는 간투사를 보면, 방언화자가 8가지 종류의 간투사를 25회에 걸쳐 사용하는 반면, 표준어 남성화자는 7종류를 모두 11회, 표준어 여성화자는 두 종류를 한 번씩 사용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방언화자가 군소리를 억양구 경계로 가장 많이 취함을 알 수 있다. 문장 중간에 위치한 억양구말의 비간투사는 세 화자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문법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통사구조와 운율구조의 상관성을 볼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추후과제로 남긴다.

3.3.6 자연발화의 경계톤연구의 문제점 및 추후 과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더욱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과 추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형태소일지라도 통사구조에 따라 경계톤이 영향받으므로 문법구조와의 상관관계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음성자료에서 예를 들면, “한 삼년 놀고#(HLH%) 한 또 육개월 다니고#(LH%) 한 일년 놀고#(H%) 또 육개월 다녔거든요#(H%).”라는 자료에서는 같은 형태소 ‘고’가 각각 HLH%, LH%, 및 H%의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달이며는 한 어느때는 한 이십일도 먹구요#(LH%) 보름도 먹구요#(L%)에서 ‘먹구요’의 ‘요’는 어근까지 동일한데도 LH%와 L%로 각각 달리 나타난다.

둘째, 경계톤의 유형 분포는 문장간의 담화적 요소와도 관련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문장의 ‘다녔거든요’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종결어미일지라도 H%형이 나타난다. Park(1997)은 음운론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담화구조와 감정상태에 따른 억양구말 경계톤을 분석하였는데 본 논문이 비록 실제 자연발화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체계적인 담화구조와 감정상태별 음성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셋째, 본 논문의 주요 대상이 형태나 내용이 똑같지 않은 자연 발화였으므로 분석한 경계톤의 비율 분석은 더 많은 음성분석을 통해 확실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문장 중간 위치에서 억양구말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간투사들을 그 유형별로 경계톤의 유형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연발화의 대화체 자료에서 간투사들의 음성처리가 선행되면 나머지 자료에 대한 분석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낭독체 및 자연발화 자료의 억양구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경계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위치에 따라 억양구 경계톤의 유형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문장말 위치와 문장 중간 위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화자별 다양한 변화를 보기 위하여 표준어 남성화자와 표준어 여성화자 및 표준어 남성화자와 방언 남성화자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경계톤이 없이는 억양구말의 형태소들을 그 종류별로 빈도수를 산출하여 화자별

로, 또 문장내의 위치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오는지를 살펴 보았다.

억양구와 악센트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기영 & 송민석 1998, Jun 1998 등)을 살펴보면 악센트구들은 일반적으로 억양구내에서 점점 피치가 낮아지는 하강(declination) 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³⁾ 그리고 억양구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악센트구에는 그 억양구의 경계톤이 실리게 된다.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의 자연발화를 녹음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 한국어의 경계톤은 아홉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참 고 문 헌

- 오미라, 이해영. 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한국어교육* 5, 109-126.
- 이기영, 송민석. 1998. "Automatic Segmentation of Korean Prosodic Phrases. *Proceedings of 1997*, 747-751.
- 정국 외. 1998. "음성언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운율구조 및 담화구조연구." 1998 한국통신 장기기초 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한국통신연구개발단.
- Ko, Do-Heung. 1989. "Syntactic Aspects of F0 Declination in Korean, in S. Kuno et al.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127-143.
- Jun, Sun-Ah. 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un-Ah. 1998. "The Accentual Phrases in the Korean Prosodic Hierachy," *Phonology* 15: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Sayhyon. 1997. "Sentence-Final Intonation Contours: Formal Description," *Journal of Phonetic Sciences* 1. 39-54.
- Pierrehumbert, J. and M. Beckman. 1988. *Japanese Tone Structure*, MIT Press, Cambridge, Mass.

접수일자 : '99. 2. 18.

게재결정 : '99. 3. 28.

▲ 한 선 회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26-7
대림대학 실무영어과
e-mail: shhan@daelim.ac.kr

▲ 오 미 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454-5
여주대학 실무영어과
e-mail: mroh@yeojoo.ac.kr

3) 하강 현상이라 함은 하나의 악센트구 내에서 H(igh) 톤이 두 개 나타날 경우는 악센트구의 경계에 의해 뒤의 H 톤이 높지만, L(ow) 톤은 점점 낮아지며, 그 다음 악센트구의 H 톤은 다시 앞의 H 톤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부록 1>

Case 1 & Case 2

Case 1

A: 자.# 이혼에 관한 상담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C: 여보세요?#

A: 네.#

B: 네, 안녕하세요?#

C: 네, 안녕하십니까?#

A: 고민있으세요?#

C: 네.# 저는 지금# 올해# 마흔 다섯 됐습니다.#

B: 네.#

C: 근데# 결혼한지는 지금 사년 한 칠개월 됐고요.#

B: 네.#

C: 저는 인제# 저희#

B: 예.#

C: 짐사람이# 좀# 가출이 좀 심합니다.#

B: 네네.#

C: 근데# 그 동안에 그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는요.#

B: 예.#

C: 어-# 열 일곱 살 부터, 그 버스 안내양 할 때부터#

B: 예.#

C: 이#, 자꾸 돌아 다니는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저게 붙어서 굿을 크게 했답니다.#

B: 예.#

C: 굿을 크게 했는데도# 지금도 역시 저하고 지금 살면서 딸은 지금 세 살먹은 딸이 하나 있는데요.#

B: 예.#

C: 그 늦장가를 좀 갔습니다.#

B: 예.#

C: 근데 이 사람이# 특하면 음주에다가#

B: 네.#

C: 특하면 저희 집에 있는 돈을 들고 나가서#

B: 예.#

C: 삼일이고 오일이고 일주일이고 안 들어왔다가#

B: 네.#

C: 또 인제# 미안하다고 또 들어오고#

B: 네.#

C: 인제 그러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늦게 만나서#

B: 네.#

C: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인데#

B: 예.#

C: 뭐#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이 리어카를 끌어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B: 네.#

C: 다독거리려 봤고 했지만은# 도저히 저기 지금 힘이 들어요 지금 또 나간지 오일쯤 돼서
소식 하나 없고#

B: 아 -# 네.#

C: 뭐-#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B: 네.#

C: 근데 그것이# 한 벌써 이삼년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어-#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거# 술을 먹고서#

B: 음#

C: 자기 인제#아버님한테 술값이 없다고 그래서--#

B: 음#

C: 술값을 대신 또 지불하고 업고,# 시동생하고 업고 온 적도 있고#

B: 네.#

C: 이런 것이 너무 쌓이고 쌓여대니까# 인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B: 네.#

C: 그래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병원에 가보자고 그래도#

B: 네.#

C: 뭐 그런 것도 없고# 자기 괜찮다고 그래 또-- 역시 또 이럴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
요.#

B: 네.#

C: 아주 사람이# 남들이 보면 너무 부지런하다고 그러하는데,# 그것이 또 무슨 뭐-- 어떤
--이 오면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고 그러면 또 안 들어오고#

B: 네.#

C: 하튼 이 좀 주사가 좀 심합니다.#

B: 네.#

C: 그리고 자기는# 몸에 있는 귀금속 뭐 이런 거 술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다 집어 던지고
빈 몸으로 오고#

B: 네.#

C: 이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B: 네.#

C: 그래서# 그 --# 처갓덕에서 물어 보니까 언니는 그전부터 그런 게 좀 많다고 그러대요.#

B: 네네.#

C: 그 처제들이나# 모든 거 저 직계가족들이 말하면 도대체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B: 네.#

C: 예, 제가# 나이도 이제 많- 좀 어느 정도 들었고.#

B: 예# 우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남남이 다 만나서 사는 게 아니겠어
요?#

C: 예.#

B: 그 어려움은 다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어,# 극복해가면서 또
살아가는 재미라는 게 또 대단한 것이거든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 어
떤 그--# 해결의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충고를 드리면 예# 우
선 부인의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C: 네.#

B: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하던은#

C: 네.#

B: 결혼을 어렵게 했더라도#

- C: 네.#
 B: 부부는 서로 그 결혼을 아주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노력할 의무라는 게 있어요.#
 C: 네네.#
 B: 서로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마,# 남보다 더 행복하게,# 또 과거가 어려워다면은#
 C: 네.#
 B: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C: 근데 이사람이#
 B: 근데 예.#
 C: 지금 또 카바레를 많이 좀 자주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B: 네.# 근데 이제 그런 마 “얘기가 있어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 이번에 들어오시거든 어--# 그것을 단단히 서로 얘기를 깊이 나누시고# 어--# 이--# 가출을 하는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를 다 갖습니다.# 또,# 핑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때문에 내가 나간단든지#
 C: 아,# 이 그런 거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B: 아니,# 아니 내가 그걸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C: 네네.#
 B: 나가는 쪽에서 그런 것을 핑계 삼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C: 예예.#
 B: 네.# 그러니까,# 마,# 그런 핑계라도 좋고 뭐든지 관계 없으니까 아,# 진실로 왜 나가는 가 하는 것을 남편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C: 예.#
 B: 이해를 하시라는 것은# 너그럽게 뭘- 그걸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C: 네네.#
 B: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그것이 병적인가# 또, 아니면 습관적인가#
 C: 네.#
 B: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든지# 그렇다면 그건 병적이라고 봐야 되겠고,#
 C: 예예.#
 B: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을 자시고 시아버지한테 술값을 갚으라고 그러고# 시동생에게 업혀 온다고 하는 이런 것은# 통상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행동 양태거든요.#
 C: 예예.#
 B: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 정신적으로 온당하지 않는--# 아니면 어떤 갈등이 심해 가지고 그런 그 술을 폭음을 하게 되고 주사를 갖게 되는,# 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C: 예예.#
 B: 네.#
 A: 네.# 자# 음악 듣고 상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Case 2

- C: 여보세요?#
 A: 네네.#
 C: 네,#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세요?#

- B: 네,# 안녕하세요?#
 A: 박사님께 말씀하시죠.#
 C: 네.# 다른 게 아니고요.#
 B: 네.#
 C: 결혼한 지 한 구년 됐거든요.#
 B: 네.#
 C: 근데 신랑이# 신혼 초에 한 이년 직장생활 했구요.#
 B: 네.#
 C: 한 삼년 놀고# 한 또 육개월 다니고#
 B: 네.#
 C: 한 일년 놀고# 또 육개월 다녔거든요.#
 B: 네네.#
 C: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안 할려구 그래요.#
 B: 예-#
 C: 술만 먹고요.#
 B: 네.#
 C: 그리고 한 번은 카드를 빼 썼거든요.#
 B: 네.#
 C: 근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B: 예.#
 C: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달만 다녀서 메꿔 보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래서 그럼# 나도 알겠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 보겠다 그리고 일을 다녔거든요?#
 B: 네.#
 C: 그랬더니 그나마도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B: 아, 일어요?#
 C: 예-# 일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B: 음,# 이유는 뭘니까?#
 C: 그러니까,# 막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고 그런대구요.#
 B: 아, 네.#
 C: 그리고 술을 그렇게 먹어요.# 많이요.#
 B: 네네.#
 C: 한달이면은# 한# 어느 때는 한 이십일도 먹구요,#
 B: 네.#
 C: 보름도 먹구요.#
 B: 으음,# 근데 그,# 남자를 만난다고 그러는 거는 그--# 실제로 그렇게 만나는 그겁니까,
 아니면#
 C: 어,# 전혀 아니지요.#
 A: 음.#
 C: 전혀 없지요.# 그런 거는요.# 바로 집 옆에 다니거든요.#
 B: 그래.# 의심을 한다 이말이죠?#
 C: 네.#
 B: 네.#
 A: 지금,# 주부께서 집 나와 계신 지 일년 됐다고요?#
 C: 예.#
 B: 어#
 A: 어--#

- B: 그럼 일년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C: 집을 나오면서 바로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직장출근하거든요.#
 B: 네--# 그럼 서로 저 남편하고 연락은 있나요?#
 C: 아니요,# 제가 안하거든요.#
 B: 아,# 연락을 안하시고.#
 C: 네.# 근데 신랑이 아마 친정 쪽으로 막 연락하는 거 같더라고요.#
 B: 네네--# 그럼 뭐 주사,# 거,# 술을 그렇게 자시면 주사가 있다던지 뭐--#
 C: 예.# 주사가 있지요.#
 B: 어떤 주사가 있나요?#
 C: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B: 예.#
 C: 아니면 구타도 조금 있고#
 B: 음#
 C: 심하지는 않거든요.#
 B: 네.#
 C: 그리고 맨날 니네 집에 가래요.# 언젠가는 이혼해 줄 테니까# 항상 그 말을 신혼 초부터 하더라고요.#
 B: 네.# 그럼 집 나온지가 이번에 일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과# -- 유사한 일 때문에 집을 나오신 적이 있나요?#
 C: 한--# 제가 그러니까 한--# 오년전에 한 이십일 나온 적이 있어요#
 B: 음.# 그때는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나요?#
 C: 그때도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나 죽인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뛰어 나왔거든요.#
 B: 네--# 그러면 그때는 왜 다시 들어갔나요?#
 C: 빌더라고요.#
 B: 네.#
 C: 그래 가지고 오빠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일 다닌다고# 그랬더니 또 --# 마찬가지로더라고요.#
 B: 예.#
 C: 그리고 저보고만 그렇게 하래요.#
 B: 예.#
 C: 그리고 그렇다고 또 다니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요.#
 B: 예예.# 알겠습니다. 우선--#
 C: 네.#
 B: 어--# 주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C: 네.#
 B: 거, 인제--# 그냥 술을 사교적으로 온전하게 자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C: 네.#
 B: 본인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이 있다든지#
 C: 네.#
 B: 갈등이 있다든지#
 C: 네.#
 B: 마,# 그런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C: 네.#
 B: 그 다음에 한달이면 이십일 이상 그 술을--
 C: 입에 대면 그렇게 해요.#
 B: 예.# 입에 대면 그렇게 폭음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 C: 네.#
 B: 이미 그것도 사교적으로 술을 이, 즐겨서 자시는 수준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C: 네.#
 B: 에--# 그래서 그건 그 주정중독이라든지#
 C: 네.#
 B: 마,#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C: 네.#
 B: 그러니까 그 결과로#
 C: 네.#
 B: 그런 직업을 그--# 온당하게 어--# 다닐 수 없는 마,# 그런 이유도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C: 술 때문에 직업을 온전치 못해요.# 다니질 못해요.#
 B: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제 부인을 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는 거#
 C: 네.#
 B: 이런 거는 마,# 개인이 그 남편이#
 C: 네.#
 B: 어--# 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든지#
 C: 네.#
 B: 또는 이제 조금 발전이 되면 의처증이라든지#
 C: 네.#
 B: 마,# 이런거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제 술을 마시면은 그런 것이 좀 더 심해지게 되고#
 C: 네,# 심해져요. 점점요.#
 B: 네,# 심해지고#
 C: 네.#
 B: 인제# 이런 걸로 봐서는 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열등감이 있고#
 C: 네.#
 B: 또 인제# 그 의처증 같은 증상이 인제 나타날 정도로#
 C: 네.#
 B: 그--# 가볍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C: 아--#
 B: 저는 이 해결을 위해서# 부인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C: 네.#
 B: 하나는 어--# 곧바로 정신과에 그 진찰을 의뢰해 보셔야 합니다.#
 C: 네.#
 B: 에--# 치료적으로 의뢰를 해 보시고#
 A: 음.#
 B: 인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A: 음--#
 B: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지속된다면은#
 C: 네.#
 B: 그# 지금 집을 나오셔 가지고 일년동안 계시는 이런 것도#
 C: 네.#
 B: 아--# 상대방이 이혼을 제기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C: 네.#

B: 부인께서 이혼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A: 음.#

B: 근까 앞으로의 노력을 전제로#

C: 네.#

A: 음.#

B: 그것이 그# 여의치 않다든지#

C: 네.#

B: 어-# 더 나쁜 쪽으로 뭐--# 그-# 발전이 되고 수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은#

C: 네.#

B: 이혼이 좋은 방법일 수 밖에 없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A: 네.# 참고하세요.# 어--#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시흥방면 광명대교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술취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서 위험합니다.# 합한덕씨.# 도봉로 방학 사거리에서 쌍문역 방면 쌍문역 앞에# 택시 고장으로 위험합니다.# 강원찬 통신원 주셨습니다.# 자,# 이번 전화도 앞의 분하고 좀 비슷한 경운데요.#

B: 음--# 네네.#

A: 주부이신데#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술로 이성을 잃고 싸움이--# 잦고# 시아버지와 술버릇이 좀 비슷하다# 근데 아주 좀 심하다라는 그런-- # 분이십니다.#

B: 네네.#